

7급 경제학원론(2013. 6. 22)

(미시9 (계산1), 거시10 (계산4), 국제3 (무역2, 수지1))

1. 총평

1) 영역별 문항 수

올해는 미시경제이론에서 9문항(계산문제 1), 거시경제이론에서 10문항(계산문제 4) 그리고 국제경제이론에서 3문항(무역이론 2, 수지이론 1, 계산문제 0)이 출제되었다.

2) 총평

그러나 기존에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에서 5문항(미시 1문항, 거시 4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출제 형식이 기존의 형태와 다른 문제가 1문항(국제무역이론) 있었다.

이 6문항을 제외하고 보면, 올해 국가직 경제학은 작년과 같이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며 전반적 난이도는 최근 몇 년에 비하면 중하위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산문제도 문항 수도 적고 다루는 내용도 쉬웠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험생이 정상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아서 전반적 경제학 평균점수는 높지 않을 것이며, 수험생 사이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2. 이번 시험의 특징(인책형 문제 기준)

1) 기존에 다루지 않던 주제에 대한 문제

12번 : 먼델 - 토빈효과

14번 : 통화정책의 신용경로

15번 : 단일세율 소득세

17번 : 국제수지계정 기록

20번 : 자본축적황금률

2) 기존 출제형식과 달랐던 문제

19번 : 비교우위 판별

3) 어려웠던 문제

위 문항들의 제외하고 보면 9번(아모로소 - 로빈슨 공식을 이용한 계산문제)과 18번(보조금 지급과 교역조건 문제)가 다소 어려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1】 ③

- 코즈의 정리 : 피해자(B)의 부(-)의 효용(10,000) < 협상액 < 가해자(A)의 정(+의) 효용(20,000)

【2】 ①

- 명목GDP=실질GDP×물가(P), 실질GDP=명목GDP / 물가(P) (단, 물가=GDP 디플레이터 / 100)
- 문제에서, 실질GDP=명목GDP / 물가(P) ⇒ 실질GDP=100 / 1.25=80

【3】 ③ (모두 정답 ????)

총수요 증가: 물가 상승, 실질국민소득 증가

- ① 물가상승 ⇒ 실질자산가치 하락
- ② 물가상승, 국민소득 증가 ⇒ 통화수요 증가 ⇒ 이자율 상승
- ③ 물가상승 ⇒ 화폐가치 하락
- ④ 소득증가 ⇒ 조세징수액 증가 ⇒ 재정수지 개선(흑자)

【4】 ①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 비경제활동인구(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인구)
(단, 비경제활동인구 : 학생, 주부, 군인, 구직활동포기자 등)

• 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 - \text{비경제활동인구}}{\text{경제활동인구}}$

• 실업률 = $\frac{\text{경제활동인구} - \text{취업자}}{\text{경제활동인구}}$

- ①, ②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50만명) - 비경제활동인구(25만명) = 25만명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25만명) - 취업자(24만명) = 1만명
- ③, ④ 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생산가능인구}(50\text{만명}) - \text{비경제활동인구}(25\text{만명})}{\text{생산가능인구}(50\text{만명})} = 50\%$
실업률 = $\frac{\text{경제활동인구}(25\text{만명}) - \text{취업자}(24\text{만명})}{\text{경제활동인구}(25\text{만명})} = 4\%$

【5】 ②

• 교환방정식 : $MV = PY \Rightarrow \dot{M} + \dot{V} = \dot{P} + \dot{Y}$ (단, $\dot{\cdot}$: 변화율)

• 문제에서, $M(6\%) + V(0) = P + Y(3\%) \therefore \dot{P} = 3\%$

【6】 ③

- ① 시장형태에 관계없이 가격은 개별기업의 평균수입이며, 개별기업의 평균수입곡선은 그 기업의 수요곡선
완전경쟁기업 : 가격수용자이므로 기업의 생산량이 변화해도 평균수입 불변. 따라서 기업의 수요곡선은 수평선
기업의 생산량이 변화해도 평균수입이 불변이므로 한계수입은 평균수입 동일
- ②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 한계수입 = 한계비용
- ③ 생산중단점은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 생산중단시, 고정비용은 모두 손실이 되므로 매출비용
- ④ 완전경쟁시장의 시장공급곡선은 개별기업 공급곡선(평균가변비용곡선 위의 한계비용곡선)의 수평합

【7】 ④

- ①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
- ②, ③, ④ 신호발송과 선별, 정부의 인허가, 강제 보험 등은 역선택에 따른 사회후생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수단

【8】 ②

-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은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VMP = P \cdot MP_L$) 곡선
- 문제에서, 생수 수요증가(수요곡선 우측이동) : 생수가격 상승
 - ▶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VMP = P \cdot MP_L$)가 증가하여 노동수요 증가
 - ▶ 노동수요가 증가(노동수요곡선 우측이동)하면 임금 상승

【9】 ②

- 아모로소 - 로빈슨 공식 : $MR = P \left(1 - \frac{1}{\epsilon_{D_i}} \right)$ (단, ϵ_{D_i} : 개별기업수요의 가격탄력성)
- 문제에서, $MR = 2,000 \cdot \left(1 - \frac{1}{4} \right) = 1,500$ (만원) (단, $\epsilon_{D_i} = |\text{수요량 변화율}(-4\%) / \text{가격변화율}(1\%)| = 4$)

【10】 ①

- 경기과열시, 긴축 재정 · 통화정책 필요
- ① 통화공급량 축소 : 긴축 통화정책
 - ②, ③, ④ 확대 재정정책

【11】 ④

- IS - LM 균형
 - ▶ IS 곡선식과 LM 곡선식을 연립으로 풀어 균형이자율과 균형국민소득 도출
 - ▶ 문제의 경우, 통화시장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IS 곡선식과 주어진 잠재GDP를 이용하여 이자율 도출
- 문제에서,
 - ▶ IS 곡선식 : $Y^D = C + I^D + G + NX = Y$

$$\Rightarrow (14,000 + 0.5(Y - T) - 3,000r) + (5,000 - 2,000r) + 5,000 + 400 = Y$$

$$\Rightarrow (14,000 + 0.5(Y - 8,000) - 3,000r) + (5,000 - 2,000r) + 5,000 + 400 = Y$$

$$\Rightarrow (10,000 + 0.5Y) + (5,000 - 5,000r) + 5,000 + 400 = Y$$

$$\Rightarrow 0.5Y = 20,400 - 5,000r$$

$$\Rightarrow Y = 40,800 - 10,000r \text{ (IS 곡선식의 역함수)}$$
 - ▶ 이자율 도출 : $Y^* = 40,000 = 40,800 - 10,000r \Rightarrow 10,000r = 800 \therefore r = 0.08$

【12】

정답 ②

해설

- 먼델 - 토빈효과 :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 효과
 - ▶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실질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 증가
 - ▶ 투자가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 증가
 - ▶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통화수요가 증가하여 명목이자율 상승
 - ▶ 이때 명목이자율 상승률이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작아서 실질이자율은 하락. 이를 먼델 - 토빈효과라고 함

【13】 ③

- ①, ② 미국 : 일부는 한국인 고용. 따라서 미국 GDP 증가분 > 미국 GNP 증가분
 ③, ④ 한국 : 일부는 한국인 고용. 따라서 한국 GDP 감소분 > 한국 GNP 감소분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국내생산과 고용이 위축되므로 GDP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

【14】 ④

- 통화정책의 신용경로 : 중앙은행 통화공급 증가 ⇒ 금융기관 대출 여력이 증가하여 대출 증가
 ⇒ 가계소비 증가, 기업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① 금융중개 : 시중은행 예금과 대출
- ②, ③ 은행과 차입자 사이에 정보비대칭 존재
- ④ 은행대출과 그에 따른 은행의 채권은 완전보완 관계

【15】 ④

- 단일세율소득세
 - ▶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하나의 세율을 적용
 - ▶ 인적공제나 명백한 소득취득 비용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 장점 :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교란 최소화, 행정비용의 최소화, 조세회피 방지
 - ▶ 문제점 :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정성 저해

【16】 ②

- ② 코즈의 정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자율적 협상과 보상에 의해 외부비경제 문제 해결

【17】 ①

국제수지표 작성 <예>

- 거래 1. 자동차 90백만달러치를 현금으로 수출
- 거래 2. 철강재 10백만달러를 6개월후에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외상 수출
- 거래 3. 원유 80백만달러를 현금으로 수입
- 거래 4. 고철 5백만달러를 3개월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상 수입
- 거래 5. 국내 해운사가 수출화물의 화물운임대가로 외국으로부터 20백만달러를 받음
- 거래 6. 해외여행시 17백만달러의 여행경비 사용
- 거래 7. 외채에 대한 이자로 외국에 13백만달러 지급
- 거래 8. 국내친지가 해외교포로부터 현금 2백만달러를 송금받음
- 거래 9. 외국기업이 현금 50백만달러를 국내기업에 투자
- 거래 10.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외화증권을 30백만달러 발행
- 거래 1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증권 77억원을 발행(달러 환산시 7백만달러)
- 거래 12. 거주자가 외국으로 이민가면서 이주비용으로 15백만달러를 환전 송금
- 거래 13. 국내기업이 특허권을 외국기업에 매각하고 현금 3백만달러를 받음
- 거래 14. 한국은행이 국내외환시장에서 6백만달러 매입

※첨자는 위의 거래번호		차변(-)	대변(+)	수지				
경상수지	상품수지		80 ³ 5 ⁴	90 ¹ 10 ²	15			
	서비스수지		17 ⁶	20 ⁵	3			
	소득수지		13 ⁷		-13			
	경상이전수지			2 ⁸	2			
	소 계		115	122	7			
자본수지	투자계정	직접투자		50 ⁹	50			
		금융계정	증권투자	7 ¹¹	30 ¹⁰	23		
	기타투자		90 ¹ 10 ² 20 ⁵ 2 ⁸	80 ³ 5 ⁴ 17 ⁶ 13 ⁷	-62			
			50 ⁹ 30 ¹⁰ 3 ¹³	7 ¹¹ 15 ¹² 6 ¹⁴				
			기타자본수지			15 ¹²	3 ¹³	-12
			소 계			227	226	-1
	준비자산 증(-) 감		6 ¹⁴		-6			

【18】 ③

- $\text{교역조건} = \frac{\text{수입량}(Y)}{\text{수출량}(X)} = \frac{\text{수출품 가격}(P_X)}{\text{수입품 가격}(P_Y)}$
- A 국 수출품에 정액보조금 지급시, 수출품 가격(P_X) 하락
 - ▶ 가. A 국이 대국일 경우, 국제시장에서 X재 가격 하락. 따라서 교역조건 악화
 - ▶ 나, 다. A 국이 소국일 경우, 국제시장에서 가격수용자이므로 X재 가격은 다시 상승. 따라서, 교역조건은 불변

【19】 ② (정답 없음 ???)

- $MRTS_{LK}^X = -\frac{dK}{dL} = \frac{MP_L}{MP_K} = \frac{2LK}{L^2} = \frac{2K}{L} = \frac{W}{r} > MRTS_{LK}^Y = -\frac{dK}{dL} = \frac{MP_L}{MP_K} = \frac{K^2}{2LK} = \frac{K}{2L} = \frac{W}{r}$
 - ▶ X재 생산 :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 Y재 생산 :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A국의 자본 - 노동비율 $\left(\frac{K}{L}\right) = \frac{50}{100} = 0.5 > B국의 자본 - 노동비율 \left(\frac{K}{L}\right) = \frac{60}{180} = \frac{1}{3}$
 - ▶ A국은 (상대적) 자본풍부국.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음. 따라서 X재 생산에 비교우위
 - ▶ B국은 (상대적) 노동풍부국.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따라서 Y재 생산에 비교우위
- 핵서 - 오린 정리 : 상대적으로 풍부한(싼)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생산물에 비교우위
 - ▶ A국은 (상대적) 자본풍부국. 따라서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Y재에 비교우위
 - ▶ B국은 (상대적) 노동풍부국. 따라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X재에 비교우위

【20】 ③

- ①, ② 솔로우 모형 : 인구증가율이 높을수록 1인당 GDP 감소
지속적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지속적 경제성장(1인당 GDP 증가) 가능
- ③, ④ 최적성장모형 : 1인당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경제성장모형
 - ▶ 황금률 :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조건. 자본의 한계생산성(MP_K) = 노동증가율(n) + 감가상각률(δ)
 - ▶ 불균형시, 1인당 자본이 황금률 자본량보다 작을 경우($k < k^*$) : 저축이 증가하면 1인당 자본, 소득 및 소비 모두 증가
1인당 자본이 황금률 자본량보다 클 경우($k > k^*$) : 저축이 증가하면 1인당 자본, 소득 및 소비 모두 감소